

시즌3 - 2호 | 시편 26 ~ 50편

PEACE CHURCH

HAPPY MEAL Kit



해피밀은 평안교회 성도님들의 복있는 일상을 위한 매일 <경건밀키트> 입니다.

해피밀 시즌3 - 2호를 발간하며, 나의 삶을 들여다 봅니다.

샬롬!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타적이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 평안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은 우리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저자들은 고난 속에서 감정의 기복을 겪고, 때로는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기쁨을 경험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소망을 얻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시편 저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사랑이 교차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감정과 경험을 뛰어넘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번 해피밀 시즌 3-2호를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풍성히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 가정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2024년 7월 어느날
수원평안교회 담임목사 정재광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Paul Jung'.

1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2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3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4 허망한 사람과 같이 있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5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니 악한 자와 같이 있지 아니하리이다 6 여호와여 내가 무죄하므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7 감사의 소리를 들려 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무엇을 잘라야 할까요?

‘꼬리 자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마뱀 같은 파충류가 자신의 꼬리를 자르고 도망치는 행위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주로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나 또는 내가 속한 집단이 어떤 도덕적, 법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처럼 악인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꼬리를 자르고, 같은 편의 등을 찢는 등 어떤 구별된 행위를 보이려 애를 씁니다. 하물며 의인은 어떨까요? 악인보다 더욱 철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무고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인들과 자신의 구별됨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자신의 완전함을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수록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큰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행하는 작은 악쯤은 눈 감아주는 너그러운 자들이기 바로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인이 해야 할 행동이 아닙니다. 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악한 마음을 찾아내어 완벽하게 잘라내십시오.** 그들의 악을 닳고 싶어 하는 내 마음속의 악한 양심을 뿌리 뽑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뜻과 양심을 단련해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무죄하며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위와 같은 꼬리 자르기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Q.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상황에서 내가 붙잡아야 하는 진리는 무엇인가요?

1 여호와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4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5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6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여호와와 나의 빛

드물지만 삶의 역경 앞에서 눈썹조차 찌푸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곤 합니다. 그럴 때면 어떤 어두움도 그들의 얼굴빛을 빼앗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관계를 제외하고 성도님들과 공유할 수 있는 대중적인 사람들 중에 이러한 분들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몇 년 전, 영화와 다큐멘터리로 소개되었던 '교회 오빠'의 주인공 고 이관희 집사님이 생각납니다(작년 고난주간 집회 당시 그분의 아내이신 오은주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과 아내 모두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암판정 소식으로 인해 상심하여 자살하셨습니다. 그러나 고 이관희 집사님은 끝까지 주를 신뢰하였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 암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던 걸까요? 아닐 겁니다. 이러한 영역의 무통주사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이겨낼 수 있던 비결은 어두움을 이기는 빛 가운데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완전한 어두움, 곧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죽음을 이겨내었습니다. 그 빛은 성소에서 비쳐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성소의 주인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빛 되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것을 사모하는 데에 온 힘을 다하십시오. 어떠한 원수도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내 마음을 어두움으로 몰아가는 문제들을 꼽아보세요.

Q. 죽음보다 더 큰 어두움이 있습니까? 없다면 주님의 부활이 이 모든 어두움을 이겨낼 힘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합니다.

1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2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3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4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5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6 여호와를 찬송함이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은혜의 하나님

요즘 출시되는 이어폰에는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변 소음을 차단하여 줍니다. 저도 평소에 무척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에 심취하다 보면 때로는 꼭 필요한 소리도 듣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제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제 경우는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일이다보니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경우는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일입니다.** 절대로 도움을 주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원수와 같은 관계에서나 일어나는 일인데,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큰 보상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 이상으로 무언가를 주는 행위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주께서 자기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자기는 죽은 자와 같다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님께 드릴 것 하나 없는 ‘빈 손’입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실 마음이 없다면 그의 기도는 헛수고일 것입니다. 그러나 6절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2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의도적으로 차단하지 않고 반대로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선한 열매를 맛보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기도 응답을 위해 하나님의 환심을 쟁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할까요?

Q.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기도제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2가지 사실을 기억하며 은혜를 구해봅시다.

3 여호와와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렛소리를 내시니 여호와와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4 여호와와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와 소리가 위엄차도다 5 여호와와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6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7 여호와와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8 여호와와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9 여호와와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갭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10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11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폭풍 속에서도 평안히 사는 비결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한 서술로 가득합니다. 그분은 폭풍을 일으키시고 화염도 가르십니다. 천지를 떨게 하십니다. 사람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투성이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지난 3일 동안 살펴본 본문은 대체로 나의 억울함에 대한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같은 표현들이 어찌면 조금 어색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다행히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단숨에 잠재우는 구절이 있습니다. 10~11절입니다. 이 구절들은 ‘홍수’와 ‘평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홍수는 노아의 홍수를 가리키곤 합니다. 당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세상의 악을 심판하셨습니다. 반대로 의인과 그의 가족들은 방주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서도 자신의 영광을 얼마든지 선포하시는 지존자이자, **자기 백성에게는 평안을 주시는 왕으로 좌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분의 왕 되심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곁에 일어나는 모든 초자연적인 일들로 인해, **내 힘을 벗어난 문제로 인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십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평안의 소식으로 여겨지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나의 평안함을 위협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Q. 주님께서 모든 홍수와 폭풍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입술의 고백으로 그분을 찬양합니다!

6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7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 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8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9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10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11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12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혹시 춤추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저희 첫째 딸은 어린이 찬양만 들으면 자동으로 춤사위를 펼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딸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제 마음도 덩달아 기뻐서 함께 춤추게 됩니다. 물론 실력은 둘 다 형편없습니다. 사랑은 봄비처럼 우리의 마음에 쏟아져 기쁨의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우리를 춤추게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떻게 우리를 춤추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넘치는 사랑으로 삼위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춤을 추시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우리를 춤추게 하는 것처럼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도 삼위 간의 사랑으로 당연히 춤을 추실 것이라는 은유도 충분히 허락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러한 맥락 속에서 ‘사랑의 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은 그 사랑의 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 교만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는 원수에게 쫓기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자비는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다시 춤추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는 우리에게 함께 춤추자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의 춤도 멈추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때만 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슬픔에 빠진 자들을 위해 아버지과 잡고 계시던 손을 놓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고 아버지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죄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그분과 다시 춤을 추시기를 바랍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사랑의 춤이란 무엇인가요?

Q. 죄로 인해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된 사람들이 다시 춤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 가족 <시편 30편> 묵상하기

가정에배 미니홈피

1. 시편 30편을 필사해봅시다. (청소년용)

1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2 여호와 내 하나님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3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4 주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5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이다 6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7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 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8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9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10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11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12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2. 시편 30편의 의미를 나눠봅시다. (가정의 대표자)

대표자가 '월요일 해피인사이드'를 읽거나 혹은 교회 유튜브를 통해 '토요일 미니홈피 영상'을 함께 시청합니다.

3. 핸드폰 배경화면을 변경하고 한 주 동안 묵상해봅시다. (온가족)



시편 30편 배경화면 다운로드 (QR 코드 스캔)



다운 받아 사용하세요!

시편 31편 1-24절

1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 5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 7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 9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 14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 이시라 하였나이다 15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 23 너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24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하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우리 모두 주님의 인자하심을!**

믿음을 고백하기에 좋은 상황이란 없습니다. 배가 부르고, 날이 화창한 날에도 믿음을 고백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고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상황에도 믿음을 고백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즉, 상황이 믿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31편은 크게 두 토막(1~8, 9~24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토막은 탄원(1~2, 9~13절), 신뢰(3~6, 14~20절), 감사(7~8, 21~24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락마다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자는 탄원을 통해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을 들고 주님께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나요? 친구, 배우자, 부모님 혹은 술, 인터넷에 맡기어 해답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자는 신뢰 단락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보입니다. 그의 상황이 나아져서 신뢰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나를 속량하셨나이다(5절),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14절)' 확신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는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불확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공동체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입술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Q. 우리의 소그룹은 함께 모여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있나요?

시편 32편 1-11절

1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 5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6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 8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9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10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11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참된 복은 용서입니다.**

시편 32편은 복(1, 2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복은 무엇일까요? 로또에 당첨되는 것입니까?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입니까?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평안한 것입니까? 세상은 이러한 것들을 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조상들이 도우신다,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했다'라는 식의 말을 당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의 저자는 복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의 인생의 경험(3~5절)을 통해 자신이 경험한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용서(1절 죄가 가려진, 2절 정죄 당하지 아니하는, 5절 죄악을 사하셨나이다)입니다. 그는 죄를 고백하지 않으려고 입을 다문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3절). 하지만 그것은 자신을 피폐하고 마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여호와께 나아가 모든 죄를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주께 나아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저자는 비로소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한 말과 노새처럼 되지 않아야 합니다(9절). 그들에게는 지각이 없습니다. 재갈과 고삐로, 강제로 통제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각이 있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여호와께 나아가 마땅한 신뢰를 보이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실 줄 믿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복이란 무엇일까요? 함께 나누어 봅시다.

Q. 주님께 아뢰지 않고, 완강함으로 입을 다물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시편 33편 1-22절

1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 6 여호와와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9 그가 말씀하시매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매 견고히 섰도다 ... 10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11 여호와와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13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어 14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살피시는도다 ... 16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18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19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 22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찬송받으실 분 여호와 하나님!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면 '왜?'라는 질문을 다시 받게 됩니다. 아이들은 모든 것들을 궁금해합니다. '태양의 이름이 왜 태양인지, 태양은 왜 항상 떠 있지 않은지, 태양은 왜 뜨거운지'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아이들에게만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인들도 항상 '왜?'라는 질문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인은 단순히 궁금증에서 비롯된 '왜?'가 아닙니다. 성인은 '합리성'으로부터 비롯하여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33편은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청 가운데 '합리성'을 내세웁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등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시편 저자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온 세상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의 단 한 마디로 지어졌고, 그의 말씀으로 견고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9절).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 가치, 이념, 사람은 폐하여질 것입니다(10절).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11절). 군대, 용사, 수많은 군마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16~17절).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합리성'으로 주님을 외면하는 자들을 찾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돌보십니다. 단순히 건강, 재력, 힘을 더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자신을 경외하는 자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십니다(19절). 이처럼 주님을 찬송할 만한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합리성'으로 수많은 근거를 가리지 말고, '신뢰'함으로 수많은 근거를 찾고, 주님을 즐거워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피상적인 지식으로 대하고 있지 않나요?

Q.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근거들을 함께 찾아봅시다.

시편 34편 1-22절

1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어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 4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 6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 10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 12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13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14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15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데도 16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데도다 ... 22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늘 감사하는 삶

우리는 모든 삶에서 주님을 찬양할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해가 뜨고, 비가 내리고, 때에 따라 계절이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어떠한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롭고도 감사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스스로 생명을 바쳐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특별 은총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늘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34편의 저자 다윗 상황은 진퇴양난입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겨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곳도 안전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은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 장군이었는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를 아기스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침을 흘리고 대문짝을 굶으며 미친 체하였습니다. 결국 거기서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허탈했을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자신의 몸 하나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확신과 신뢰를 얻었을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 앞에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강력한 동물 사자, 심지어 젊은 사자라고 할지라도 때때로 궁핍함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의인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의인을 향하시는 주님의 시선에 주목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늘 감사와 찬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때 어떤 감정이 찾아오나요?

Q.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삶에 머물고 있나요?

시편 35편 1-28절

1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2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3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11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12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13 나는 그들이 병 들었을 때에 굶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14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 같이 하였도다 ... 27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28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억울함 속에서 주님의 친절함을 수놓다**

시편 35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와중에 쓰인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느끼던 감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억울한지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상황은 매우 급박했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태산 같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는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팔을 드사 자신을 도울 것이라는 확신을 굳게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현실은 녹록지 못했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끊임없이 여호와께 대적했으며, 그를 믿고 따르는 의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의인들의 믿음을 짓밟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들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향해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영혼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주님의 친절함을 배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방문한 집을 위한 평안을 빌라고 요청했습니다.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눅 10장 5,6절).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선, 악을 가르시며 참 심판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심판을 자처하며 불의함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주님의 때에 분명히 옳은 심판을 베푸실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억울한 상황을 마주할 때 어떤 대처를 하시나요?

Q.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식구 다 같이 <시편 10편> 먹기 가정예배 미니홈피

- 1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 2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 3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 4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 5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 6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 7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 8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 9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 10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 11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 36편 1-9절

1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2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3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4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5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6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7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로다 8 하나님이어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로다 9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9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악랄한 돌팔매질 가운데에서

시편 36편은 의인을 공격하는 악인들의 계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1~4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악한 일을 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악인들은 너무나도 부지런합니다. 침상에서도 죄악을 꾀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스스로 악한 길에 선다고 합니다. 그들은 악을 사랑합니다. 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악은 오늘날 신자들을 이렇게도 매섭게 공격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며 스테반의 마음을 묵상해 봅시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매섭고 맹렬한 돌팔매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보았던 것 그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가득찬 매연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놀라운 시력이 있습니다. 그는 매연이 가득찬 이 땅에서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중에 사무친 진실하심을 발견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보배로우심을 발견합니다. 그분은 피할 곳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스테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스테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땅에 모든 악한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볼 때 스테반은 얼마나 강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배가 되셔서(7절), 우리에게 복락을 더하시고(8절), 생명의 원천이자, 생명의 빛이 되어주셨습니다(9절).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악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Q. 오늘 말씀에서 이 세상의 암담함은 무엇이고, 그러한 세상에 유일한 소망은 누구신가요?

시편 37편 1-11절

1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2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3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4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7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행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9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0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능동적으로 인내하는 방법

오늘 시편 기자는 의인들에게 악인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악인들로 인해 '불평'과 '시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악인들의 악한 행실은 뭔가 불합리해 보일 수 있고, 공평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의인은 정도를 지키며, 성실히 노력을 하는데 악인들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이득을 취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의인은 불평하지 말고, 그들의 더러운 재물을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 그들은 '심판'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심판을 풀과 푸른 채소로 비유한 것은 그들의 전성기가 오래가지 못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의 짧은 전성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인내'와 '오래 참음'입니다(7절).

그러나, 이러한 인내는 수동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면 더욱 코끼리가 생각납니다. "악인들의 불법"을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그들의 불공평함이 눈에 더 도드라지게 됩니다. 인내는 수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악인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합니다. 그 분께 집중하며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인내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 그 분의 선을 능동적으로 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능동적 인내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인에 마음에는 자연스레 소망이 피어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시편 기자는 의인에게 무엇을 요청하나요?

Q. 능동적인 인내를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합시다.

시편 38편 1-22절

1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2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3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4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5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6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7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8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매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 21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22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죄의 무게를 견딜 수 없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악인을 대하는 의인의 자세, 혹은 악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의인들의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범죄함으로 그러한 악인의 대열에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38편은 '참회의 시'라고 하며, 이는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한 마디로 의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36편에서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죄를 짓고 난 뒤 하나님에 대한 엄숙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반응합니다. 그는 비록 죄를 지어 참회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더러운 죄가 가득 묻은 상태에서 가장 바르고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죄인의 끔찍한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는 머리가 너무나도 무겁고, 마치 상처가 났다 터지며 썩어가는 자와 같으며, 마음에는 불안함이 가득하여 눈동자는 흔들리고, 인생에서 가장 친밀했던 사람들은 자신을 버림으로 극도의 소외 가운데 있게 되었으며, 어떤 이웃이든 자신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위협 속에 있는 듯하며, 말도 어눌하며, 제대로 듣지도 못합니다. 요약한 내용이나, 이 시편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그는 도무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송장처럼 널브러져 있습니다. 죄는 그 자체가 가진 힘도 지독한 사망의 씨앗이기에 끔찍하지만, 죄가 더욱 끔찍한 것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 죄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죄인을 버리지 않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죄를 지은 의인의 모습을 상상해보십시오.

Q. 오늘 본문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여 묵상하여 보세요.

시편 39편 1-12절

1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2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3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4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5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뼀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듣든지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 12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13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묵언

지금 시편 기자는 입을 다물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서 입을 열어 무언가를 전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 원수의 입장에서 기쁜 소식일 수 있고(1절), 무엇보다도 이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란 날에 우리의 신음과 불평과 아픔에 대한 쉬운 표현들이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원수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결국 차오르는 근심을 이기지 못하여, 가슴에 뜨거움을 이기지 못한 채 결국 하나님께 토로를 해냅니다.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차오르는 아픔을 그래도 이야기해야지 조금은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 우리의 성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생의 환란과 시험을 너무나도 쉽게 신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좋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은연히 빛나는 빛이 있습니다. 9-10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9절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죄를 옮겨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12절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와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옮기십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향한 고난의 길을 걸으며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셨습니다(사 53:7, 마 26:63)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시편 기자가 입을 다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 그리고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입을 다물어야 할까요?(벧전 2:23)

시편 40편 1-8절

1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3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4 여호와를 의지하고 고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5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6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 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7 그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8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인내하고 기다리며

시편 기자는 인내의 끝에 달콤한 열매를 맛보는 장면으로 오늘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익히 시편 37편에서 악인들의 흥행됨을 대하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능동적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기자는 그러한 인내를 감당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인내하며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인생에 다가온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보다도, 자신을 끌어올리시고 자신의 발에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2절).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 그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수많은 기적과, 그분의 생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인생의 위기와 악인의 흥왕이라는 환란의 때에 하나님으로 인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는 6~8절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5~10절을 기억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의 목표이자, 그분의 생각의 절정이며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드려진 속죄 제물이 되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시며, 우리 속에 오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겁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가 보았던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보다 더 큰 기적, 가장 절정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분을 주목할 때 우리 인생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분명 반석과 같이 여겨질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억울한 상황을 마주할 때 어떤 대처를 하시나요?

Q.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식구 다 같이 <36-40편> 먹기

가정예배 미니홈피

1. 아동(11~13세) 자녀와 함께 말씀먹기

1) 우리 가족 성경 읽기 : 시편 36-40편까지

온 가족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성경읽기를 진행해보세요. 오늘은 시편 11편~15편까지입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읽기를 진행하셔도 되고, 목소리 좋은 사람이 대표해서 읽어도 좋아요!

2) 우리 가족 시편 오락관!

아래 QR 코드를 통해 시편 14편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아래의 가사에 빈칸을 넣어보세요.



깊은 ()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고난의 때에 기도하라!

자! 오늘 우리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보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40편 1~8절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 40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아무래도 인생에 큰 어려움이 왔나 봐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것은 인생의 큰 어려움이 왔을 듯해요. (삶 나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 OO는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어려움이 있을까?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방금 함께 들었던 찬양을 보니까 칼랄라~ 노래를 부른다고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너무나도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많은 은혜를 이미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삶 간증을 이어가 보세요. 부모님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 믿음!)

우리 OO이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나요?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없었다면, 앞으로 엄마 아빠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OO이의 삶에도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어요!

1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2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3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불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4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11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12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불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13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기원 전도사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은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며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심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에 있어 엄청난 고난의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투병 중인 상황에 원수들이 그를 괴롭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모든 이들이 다윗과 맞서며 그의 재앙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평화롭게 지내던 사람들도 거짓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안함과 초조함에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살리실 것을 고백합니다. 원수들이 그의 위에서 환호하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불드시고 영원토록 세워주실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41:13]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상황과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어 봅시다. 내 안에 있는 적개심, 분노, 해결되지 않는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솔직한 자기 모습을 들여다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복수로 인한 통쾌함이 아닌 완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육체의 아픔,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까?

Q.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1 하나님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을까 3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9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10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11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기원 전도사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1)**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시인의 영혼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5절) 그는 하나님께 버려졌다고 생각하며 낙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두 번이나 대적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런 조롱은 시편의 기자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아프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뚜렷이 임재하시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가시적으로 매번 드러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의 고난 앞에 무너지고, 죽음의 존재가 자신을 덮치는 고통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에 따른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5절, 11절) 나의 상황이 여의찮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야만 그 분이 살아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낙심하고 불안한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Q.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성도가 됩시다.

1 하나님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2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3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4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여 나의 하나님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5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기원 전도사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2)**

42편과 43편의 시는 하나의 시입니다. 원수의 박해와 자신에 대한 실망감에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느끼는 것은 아마 육체적으로 성전에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간절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탄원의 시편을 보면 종종 기도자는 원수들을 향해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고 저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가 잘 되는 모습에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복수가 될 수 있습니까? 그의 심판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완전한 회복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시편의 기도자들은 그런 복수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 더욱 집중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없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같이 자신의 임재를 장소(성전)에 한정하지 않으시고 어떤 장소에 있던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교통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한없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가장 최고의 복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Q. 고난 중에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는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여호와와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렛소리를 내시니 여호와와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4 여호와와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와 소리가 위엄차도다 5 여호와와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6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7 여호와와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8 여호와와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9 여호와와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갭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10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11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기원 전도사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2)

이 시편의 고백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1~8절)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며, 둘째 부분(9~26절)은 현재 패배를 애도하고, 하나님에게 다시 이스라엘을 구하는 전사로 오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을 되새기며, 다시 임재하셔서 구원을 이루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했고, 점령군의 학살이 온종일 이루어집니다. 공동체는 분열되어 처참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때 자연스레 드는 질문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입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은 지도자와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통해 담대함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악화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우리의 고통 가운데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나의 상황에 따라 그분의 존재 여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확신의 믿음으로 우리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사라진 적이 있나요?

Q.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간구함으로 살아갑시다.

1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2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3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4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5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엄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6 하나님께서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7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8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아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김기원 전도사

왕의 결혼식, 사랑의 노래

결혼식에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것입니다. 대부분 예식장에서 진행하는데 예식장마다 그 분위기가 제각각입니다. 경건하고 엄숙한 결혼식이 있고, 발랄하고 귀여운 결혼식 분위기가 있습니다. 결혼식은 그 분위기가 어떻게 언제나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시편의 표제는 '결혼 노래' 입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왕의 결혼 축하 노래로 지어졌을 가능성이 큼니다. 신부와 결혼하여 낳은 왕의 아들이 보좌를 이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약속은 그의 왕조가 영속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 뿌리를 두는데, 이 언약에서 다윗에게 [삼하7:16]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약속해 주십니다.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겠지만 만약 내가 왕과 결혼한다면 어떤 것 같습니까?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모든 이들의 축하와 경배를 받는 결혼식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신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신부는 왕과 결혼하므로, 신랑과 비슷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영원한 궁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랑의 연합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신 예수님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언제나 소망하십니까?

Q. 우리는 왕 되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오늘도 기쁨을 누리봅시다.

우리 식구 다 같이 <시편43편> 먹기

가정예배 미니홈피

8월 아동부(유년) 미니홈피는 '가정예배'입니다. 부모님과 가정예배로 함께하며 교제의 기쁨을 누리봅시다!

예배 후 순서로 '한 주 동안 감사했던 일 나누기!'가 있습니다. 미리 생각하고, 준비(종이에 적어서)해서 시작해봅시다!

1. 아동(8~10세) 자녀와 함께 말씀먹기

1)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

예배순서 : 사도신경(다 같이) - 찬송(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 하심은) - 말씀읽기(자녀)

설교문 읽기(아빠 또는 엄마) - 감사기도(아빠 또는 엄마) - 주기도문(다 같이)

힘든 일이 해결 되었다는 감사의 이야기 나누기

ex) 나: 학교에서 열이 나고 몸이 아팠는데 기도하니 낫게 해주셨어요!

2) 본문의 말씀처럼 '힘든 일이 해결 되었다는 감사의 이야기'를 쓰고 나누어봅시다.

아빠:

엄마:

형제,자매:

나: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집!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걱정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초조해하며 있나요?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우리는 실수하기 쉽습니다. 또 어떻게든 일이 해결되기 위해 안 좋은 방법을 생각하여 실행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선하고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실수할 것 같았던 일도 실수를 줄여 행동할 수 있고, 안 좋은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옳은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 또한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가정이 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가정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해결책이 되십니다.

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2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4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5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6 못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도다 7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영원한 요새

질병에, 상처에, 재정 손실에, 정치적 배신에, 직업적인 실패까지 항상 무언가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지진이나 산사태라 할지라도 무한한 사랑, 부활, 새 하늘과 새 땅 같은 유산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조금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시편 46편은 튼튼한 피난처로 들어가면 안전하게 지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맹렬한 공격에도 결코 무너지는 법이 없는 견고한 요새, 또는 산성입니다. 지진이나 파도 앞에 견고한 세상과 그 문명은 녹아내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최악의 상황(죽음)마저도 우리를 더 행복하고 더 위대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고는 견고하고 믿음직스러우며 영원히 지속되는 건 없습니다. 세상 무엇도 그분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을 향한 분노나 공격까지도 주님은 구원 계획을 실행하는 데 사용합니다. 앞날이 더없이 암담해 보여도, 적대적인 공세가 아무리 극심해도 하나님의 도성은 조금도 상하지 않으며 도리어 적을 누르고 승리를 거둬할 뿐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튼튼한 피난처라는 조건이 나에게 주어져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까?

Q. 모든 환경이 바뀌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1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2 지존하신 여호와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
심이로다 3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4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5 하나님께서 즐거운 합성 중에 올라가심이어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
도다 6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7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
어다 8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9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어 아브라함
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어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자랑스러운 주의 백성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며 모든 백성에게 거룩한 통치를 펼치시는 힘센 왕이십니다. 거룩한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주
님의 다스림을 환영합니다(1절).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기쁨에 넘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특권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나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게 때로는 두렵거나 혹은 위협적
인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데 말입니
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주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사실 상대방에게 큰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 안으로
그를 초대하는 일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민족들이 입을 모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노래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더 슬기롭거나 훌륭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
다. 그러므로 누구한테 하나님을 소개하든 생색이나 우월감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나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
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바라보며 "저런 부류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이
베푸신 기적적인 은혜 덕에 믿음을 가질 뿐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가리지 않고 소망을 품고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
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내 주변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Q. 우리는 교회와 가정이라는 공간을 뛰어 넘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9 하나님이며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10 하나님이며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11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이다 12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 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 보라 13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14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듣는 신앙, 경험하는 신앙

시편 48편이 기록된 당시 군사시설에 있어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성벽이었습니다. 성벽은 적이 침공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 성벽은 적군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성벽만 무너뜨릴 수 있다면 성을 점령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벽이 얼마나 무너지고 파괴되었냐에 따라서 그곳에서 일어난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을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 시편 저자는 우리의 성벽과 궁정을 자세히 보라고 합니다. 그곳에 무너진 부분이나 상처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합니다. 확인결과 어떠한 상처도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흠집 하나 나 있지 않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적군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시편 저자는 마지막으로 이 일을 후대에 전하라고 합니다(13절).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다음 세대에 힘 있게 전파하라고 외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늘 그분에 대하여 듣기만 하는 신앙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경험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나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불확실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아닌 경험을 바탕으로 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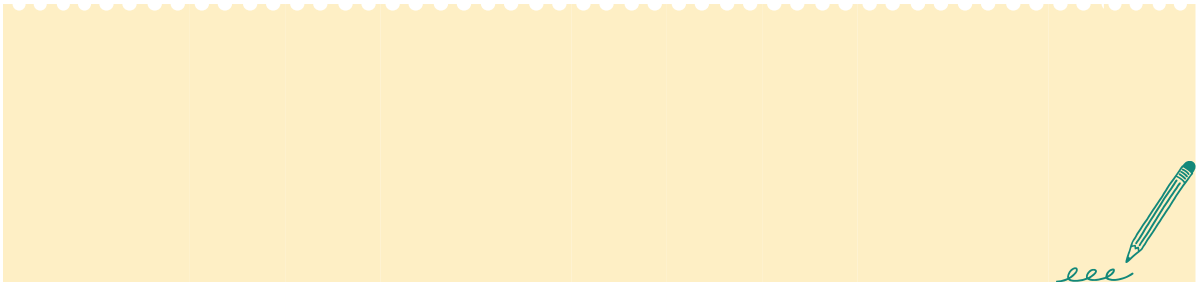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내가 선포해야 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습니까?

Q.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신 있게 자랑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5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6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7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8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9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10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 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11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12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13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셀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좋은 교육,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을 사야지만 우리에게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이 땅에서만 유효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이나 죽음 이후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이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돈과 하나님 사이를 두고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물질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맡겨주신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하는 것은 처음부터 온전히 나의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맡고 있는 청지기라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돈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 평생 참 주인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하여 기쁨으로 사용하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물질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합니까?

Q. 우리 넉넉하게 받은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섬기어야 하며, 용서해야 하며, 나누어야 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4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6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7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8 여호와와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9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어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10 여호와와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11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12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13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14 여호와와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어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두 가지 주의할 점

하나님은 두 가지 점에서 거룩한 백성들을 꾸짖으십니다. 우선, 내면의 변화가 전혀 없이 겉으로만 독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입니다. 8-13절은 재물을 열심히 바치면 하나님의 환심을 살 수 있겠다고 여기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이는 도덕주의로 윤리적인 생활을 하며 신앙적인 규범들을 잘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 호의를 베풀 셈이니 주님 쪽에서 나에게 무언가로 갚아 주실 책임이 있다는 사고방식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14~15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두 번째 신앙 행태는 삶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 모습입니다(16~21절). 꼬박꼬박 주일성수를 지키며 전통 신앙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너무 작고 가볍게 보고(21절) 남의 것을 훔치거나 간음하거나 속이거나 뒷말을 퍼트리는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이 베푸신 구원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감사하는 삶으로 반응해야 합니다(23절). 진짜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자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내가 바라는 것을 얻으려고 순종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이루신 일들이 너무 놀랍고 사랑스러워 그분을 따릅니까?

Q. 믿음과 행실 사이의 벌어진 틈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시고 그 간격을 메울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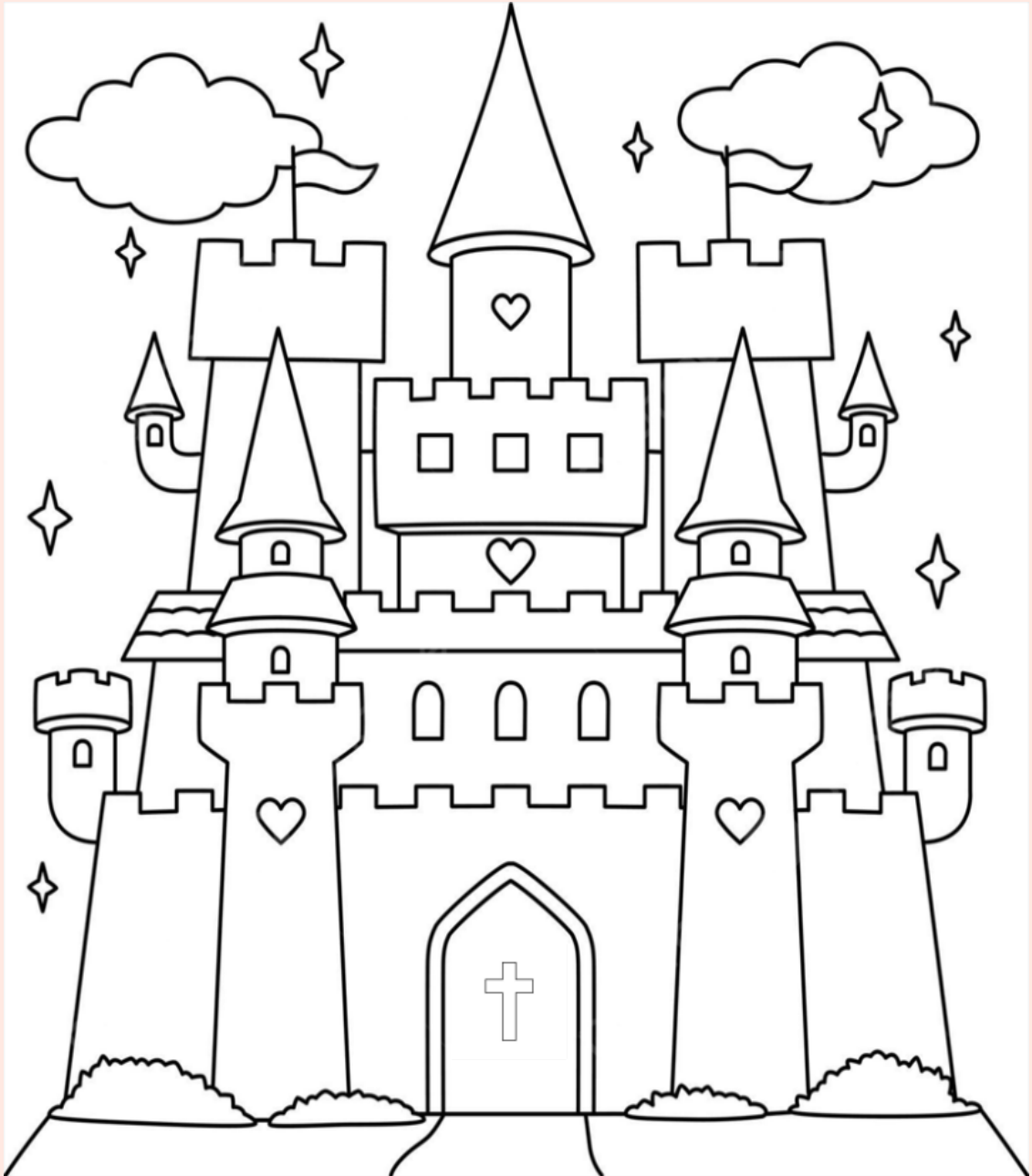
2024년 8월 31일 (토)

우리 식구 다 같이 <시편48편> 그리기 가정예배 미니홈피

미취학(3~7세) 자녀와 함께 말씀으로 색칠하는 하루

시편 48편 말씀을 기억하여 자녀들과 함께 색칠공부를 해보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우리의 성벽은 아무 흠집이나 상처가 없어요!



COME

평안교회
소개영상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평안교회 오세요



Christ alone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Outward focus

나보다 남을 섬기며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Mature together

성도들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 함
께 성숙해가는 교회입니다.

Extended family

세대간의 화합과 신앙의 대잇기를
열망하는 대가족 교회입니다.





Tel 0507-1365-8119

E-mail peacechurch@gmail.com

Adress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로218번길 110 수원평안교회 **Homepage** www.peacechurch.kr